

광주시·자치구 '청년사업' 공동 추진

5개 자치구와 손잡고 내년도 정책 계획 수립 역량교육도 공동 운영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손잡고 8월말까지 2018년 자치구 청년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8일 "2018년도 신규 시책 수립을 위해 5개 자치구 협의회를 열고 시·자치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청년활동 지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각 공간을 자치구-청년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자치구마다 청년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공간을 두고 지역 청년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청년주체의 성장을 돕자는 취지에 시와 자치구 모두 동의했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청년 계층별 실태조사 연구'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내용을 각 자치구별로 분석하여 정책 통계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자치구 담당자들이 청년의 감수성에 맞

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명순 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활동의 밑거름은 지역현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자치구 청년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와 5개 자치구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광주청년정책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 청년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2018년도 광주청년정책 자치구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민선6기 들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청년업무 전담 부서를 신

설, 광주청년위원회 등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간 지원조직인 광주청년센터 개관, 청년지원재단이 되는 광주청년정책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부터는 현장과 밀착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와 5개 자치구로 구성된 시·자치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의 청년정책 방향을 공유해왔다.
협치 회의 결과 동구의 청년업무 전담 부서 신설 이후 서구, 남구, 광산구가 각각 전담팀을 꾸리고 자치구별로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나주시

오늘 에너지밸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전남도와 나주시는 9일 오후 2시 나주 빛가람동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밸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수도권 등 전국에 전력·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나주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입주함에 따라 구인기업에 맞춤형 인력 채용 기회를 확대해 주고 구직자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수시로 열고 있다.
올 들어 9번째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인기업-구직자 간 1대1 면접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미채용자에 대해서는 구인기업의 향후 채용에 대한 전남도일자리종합센터의 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나주 혁신산단에 입주하는 인셀㈜과 전일계전 등으로 연구개발원, 경리사무원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의 성공적 지역 정착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구현을 위해 맞춤형 인력 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은 물론 취업을 바라는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전남도일자리종합센터 080-500-1919.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전공대 남구에 유치해야" '한전공과대학 광주 남구 유치 추진위원회'는 8일 오후 광주시 남구 대촌농협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약에 부응하고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전공대는 준비된 광주 남구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0월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 '농업한류' 이끈다

라오스·이집트·콩고 등 연수단

친환경농업 기술·노하우 전수

전남의 친환경농업 기술을 전수받은 세계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들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스마트 아그리텍(첨단농업기술)·식용곤충산업 등 선진농업기술을 배우며 '농업 한류'를 이끌 전망이다.
8일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 2015국제농업박람회를 계기로 기술교류협약을 맺은 라오스 참파삭주 농업산림국 직원 3명을 초청,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기술연

수를 진행했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로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을 진행, 이집트·콩고·베트남·필리핀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11개국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 기술과 방법, 노하우를 전수했다.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해 맺은 인연을 시작으로 전남농업기술원이 축적한 농업기술 개발 경험과 친환경 재배 기술 등 선진 농업기술이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농업박람회에 새로 참여하는 국제협력재단 연수단과 지난 2015년에 참가한 11개국 농업인들 간 교류간담회를 개최, 전남의 우수 농업 기술이 세계인들에

게 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철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박람회 기간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 계획"이라며 "전남농업기술원으로부터 농업기술을 전수받은 이집트·콩고 등 5개국과 국내 연구진·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 각국의 기술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농업 한류를 이끌 2017 국제농업박람회는 식용곤충산업 등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학술행사와 비즈니스의 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정과제로 본 광주 미래 ⑧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국립심혈관센터 연구개발 특구내 설립

전문인력 양성 ... 스텐트 로봇 연구도

2022년 까지 3500억 들여
치료·재활 국가주도 관리

광주시는 심혈관질환의 연구, 치료와 재활, 예방 등 국가주도 통합관리를 위한 국립심혈관센터를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심혈관질환의 연구, 치료와 재활, 예방 등 국가주도 통합관리를 위한 국립심혈관센터를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모두 국비 3500억원을 들여 부지 33만500㎡에 500병상, 연구동 등을 짓겠다는 것이다. 센터에서 한국형 심혈관질환 기초·임상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스텐트(STENT), 혈관용 마이크로 로봇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전남 장성군 역시 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2008년 강원대병원, 2009년 전남대병원, 2010년 원광대병원, 2012년 인하대병원 등 전국 11곳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충청·영남권에 집중돼 있고, 광주 연구개발특구 내에 센터가 들어설 경우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할 수 있고 배후 단지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남대병원 등 차세대 스텐트, 혈관마이크로 로봇 개발 원천기술 등 다수 보유한 인공기관 고급인력과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입지조건 역시 광주 외곽으로 접근성과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고 내세우고 있다.
광주시가 설정한 로드맵에 의해 국립심혈관센터가 건립되면 심혈관질환의 중추적 연구센터의 설치로 대학병원 부설 형태의 11개 권역별 센터의 통합적 운영과 심혈관 환자군 관리에 대한 체계적 안내, 급속한 산업화 및 경제 성장에 따라 기존 심혈관 질환 모델과 다른 행태를 보이는 한국형 심혈관질환의 체계적 연구(질환 발생, 치료 반응, 예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 심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투자 확대에 의료복지 증대 및 환자군(위험군)에 대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도모 및 국가적 의료비 지출 감소도 예상된다.
한편 심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4.8%(2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12조8300억 원이다. 심혈관질환은 그러나 80%(암의 경우 40%)가 개선 가능하며, 예방 관리에 따른 경제적 편익효과는 8407억원에 달한다. <끝>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요양병원 환자 인권보호 대책 추진

오늘 행정·간호책임자 교육

54개 병원 민관합동 점검

광주시가 '요양병원 환자 인권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8일 "지난 7월 7일 '시립제1요양병원의 노인환자 폭행 의혹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학대 예방의 지속적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을 위해 9일 요양병원 행정·간호 책임자 등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5·18교육관에서 집합교육을 개최한다.
또 9일부터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전체 54개 요양병원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전수 실태 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신체보호대 사용, 입원실 관리, 교육 실시 등 의료법 준수 여부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10일부터 25일까지 '요양병원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접수 창구도 개설한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전화를 운영 중인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요양병원 출입구 등에 안내문, 홍보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요양병원 피해 신고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필요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신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만원 / 650만원 /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16 어깨 통증과 손저림!

목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어깨 문제일까요?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시다면??

목디스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치료는

첨단우리병원!

세심한 검사와 정밀한 진단으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